

성인기 전후 부정적 경험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의사결정나무분석의 적용

유 승 희¹

¹ 국민대학교

초 록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성인기 전후 부정적 경험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자료는 서울특별시(2022)의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이며, 연구대상은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5,513명이다. 분석 방법으로 의사결정나무분석 알고리즘인 CHAID를 활용하였으며,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타당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분할 기준, 과적합 통제 전략, 교차검증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성인기 이전과 이후의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성인기 이전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 성인기 이후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 믿었던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 순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예방 및 개입 체계 강화, 청년의 자율적 진로결정권 보호 및 가족 관계 차원의 지원, 성인기 이후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신뢰 손상 경험에 대한 예방 및 심리적 지원, 생애과정 기반의 통합적 지원체계 구축과 같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 대응 방안을 제안하였다.

주요 용어: 청년, 사회적 고립, 부정적 경험, 의사결정나무

알기 쉬운 요약

이 연구는 왜 했을까? 최근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증가하면서 사회적 문제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사회적 고립이 어떤 경험을 통해 형성되는지, 특히 성장 과정과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이 어떻게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성인기 전과 성인기 이후에 경험한 부정적 사건들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효과적인 예방 및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였다.

새롭게 밝혀진 내용은? 서울시 청년 5,513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성인기 이전에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 다음으로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취업이나 진로 문제로 압박을 받거나 강요를 당한 경험이 중요하게 나타났으며,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나 배신을 당한 경험도 사회적 고립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사회적 고립은 특정 시기의 단일 경험보다 생애 전반에 걸쳐 축적된 부정적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임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하나?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과 따돌림에 대한 예방 및 조기 개입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이 자신의 진로를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가족과 주변인의 과도한 압박을 줄이고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성인기 이후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배신과 신뢰 손상 경험에 대한 심리·정서적 지원을 확대하고, 생애과정 전반의 부정적 경험을 고려한 통합적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투 고 일: 2025. 10. 09.

■ 수 정 일: 2026. 05. 21.

■ 게재확정일: 2026. 06. 11.

I. 서론

청년기는 생애주기적으로 성인기가 시작되는 시기로서 취업, 결혼, 사회적 관계 형성 등의 발달과업이 요구된다(김은정, 2015). 전통적으로 청년들은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이러한 과업을 성취하고, 사회의 일원으로 자리를 잡아왔다. 그러나 최근 경기침체, 취업난, 물가 상승, 임금 정체, 주거 불안 등으로 인해 청년들은 이러한 발달과업의 성취가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다(정근하, 노영희, 2022). 청년기에 성취하도록 기대되는 발달과업의 지연은 개인에게 무능력하다는 낙인을 부여할 수 있으며, 그 결과 불안, 수치심, 무기력, 체념 등의 부정적 감정이 깊어질 수 있다(정수남 외, 2012). 현재의 청년세대는 경쟁이 치열하고 능력을 중요시하며 친구 관계보다 학업과 입시, 좋은 직장과 높은 소득을 추구하는 것을 행복의 중요한 조건으로 삼는 사회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하였다(김재희, 박은규, 2016; 노가빈 외, 2021). 이러한 사회 분위기 속에서 경쟁사회에 적응하지 못하거나 사회생활에서 반복된 실패를 경험한 이들이 심한 열등감, 소외감, 무기력에 빠지고, 점차 외부와 단절하고 집 안에만 머무르며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이경미, 2020).

연애, 결혼, 취업, 인간관계 등을 포기하는 'N포 세대', 독립하지 못하고 부모에게 의존해서 생활하는 '캥거루족', 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니트족(NEET)', 사회적 관계를 단절하고 한정된 공간에만 머무는 '은둔형 외톨이' 등의 용어는 이러한 청년들의 현실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김재우, 2018). 이러한 용어들은 다소 초점은 다르지만, 공통적으로 청년의 사회관계 축소나 단절의 문제를 담고 있다.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9~34세 중 고립·은둔 징후가 나타난 청년은 약 54만 명으로 추정된다(관계부처 합동, 2023; 국무조정실, 2022). 또한 은둔형 외톨이에 관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은둔형 외톨이의 규모는 상당한 수준이며, 매우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김기현 외, 2017; 김형주 외, 2020). 2017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조사(김기현 외, 2017)에서 19~39세 청년 중 약 13만 5천 명이 은둔형 외톨이로 추산되었다. 이후 2020년 조사(김형주 외, 2020)에서는 18~34세 청년 중 약 37만 명이 은둔형 외톨이로 추산되어, 청년의 연령 범위가 좁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이전 수치보다 약 세 배 가까운 증가를 보였다.

사회적 고립은 단순한 관계 부족을 넘어, 청년의 심리적 안정과 삶의 질에 큰 위협 요인이 된다. 친밀한 관계 형성이 중요한 청년기에 이러한 고립은 심각한 정신건강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Erikson, 1968). 실제 선행연구들 또한 사회적 고립이 청년에게 사회·정서적 장애, 우울, 자살 위험 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Chang et al., 2015; Hazler & Denham, 2002). 미래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생산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하는 청년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현상은 향후 한국 사회의 미래가 밝지 않음을 시사한다. 2019년 기준 34만 명의 고립 청년의 경제활동 포기로 인한 경제적 손실은 연간 6.7조 원으로 추정된 바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 또한 사회적 고립은 신체적·정신적 질병 발병 확률을 높이며, 국방·납세·교육·근로, 결혼·출산 등 청년기의 경제·사회활동을 저하시켜 사회시스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관계부처 합동, 2023). 따라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는 단순한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과 건강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시급히 해결해야 할 구조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에 최근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중심으로 고립·은둔 청년 지원 조례가 신설되고 있으며, 실태조사와 학술 연구 등을 통해 사회적으로 고립된 청년의 현황과 원인을 파악하고 정책적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노가빈 외, 2021; 류주연 외, 2023; 박주홍 외, 2022; 유민상, 신동훈, 2021; 이상욱 외, 2023).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분석한 연구들은 청년기 사회적 고립이 생애 전반에 걸친 부정적인 경험이 쌓여서 나타나는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박주홍 외, 2022; 이상욱 외, 2023).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가정과 학교에서 경험한 가정폭력, 가정불화, 방치, 학대, 가난, 학교폭력 등 다양한 부정적인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리적인 상처로 남아 성인이 된 후 사회적 적응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김혜원, 2022; 노가빈 외, 2021; 이상욱 외, 2023). 또한 성인이 된 후에는

진학 및 취업 실패, 가까웠던 사람과의 갈등, 이별이나 배신과 같은 새로운 부정적 경험을 하게 되면서 청년기의 사회적 고립이 촉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박주홍 외, 2022; 유민상, 신동훈, 2021; 이상욱 외, 2023).

이처럼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성인기 전후의 부정적인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일 수 있으므로,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측에 있어서 이러한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총체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동안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측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들이 몇몇 진행된 바 있으나, 주로 질적 연구 위주로 이루어졌고(노가빈 외, 2021; 류주연 외, 2023; 박주홍 외, 2022; 이상욱 외, 2023), 양적 연구로 이루어진 경우(김정인, 2023; 이수비, 전예빈, 2023) 다중회귀분석의 통계기법을 사용하는 데 그치고 있어서 변수들 간의 다양한 결합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가 사회적 고립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는 데 한계를 갖는다. 또한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들의 중요도를 파악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은 전체 데이터를 여러 소집단으로 분류하거나 특정 값을 예측하기 위해, 의사결정 규칙을 나무 형태의 구조로 시각화하는 기법이다(김구, 2002). 이 분석 방법은 다양한 예측 요인을 동시에 고려하여 분류를 수행하고, 각 변수의 예측력을 평가함으로써 변수 간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들의 상대적 중요도를 제시하는 데에도 유용하다(김구, 2002; Shmueli et al., 2011). 이에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성인기 전후 부정적 경험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인기 전후의 부정적 경험들의 조합에 따른 상호작용 효과, 변수들의 중요도를 분석하고 사회적 고립의 위험집단을 파악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대응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II. 문헌고찰

1. 청년의 사회적 고립

가. 청년의 사회적 고립 현상과 개념

현대 사회에서는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사람들 간 물리적 거리를 뛰어넘어 상호작용하는 것이 가능해졌지만, 다른 한편으로 온라인을 벗어난 실제 세계에서의 상호작용은 줄어들고 공동체는 약화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다(김성아, 2022). 과거에는 사회적 고립이 주로 노인층의 문제로 여겨졌지만, 최근에는 청년들의 사회 진입 장벽 및 1인 가구 증가로 인해 청년층에게서도 나타날 수 있는 문제로 확산되고 있다(유민상, 신동훈, 2021). 후기산업사회에서 성장한 오늘날의 청년들은 어린 시절부터 대학입시를 위한 치열한 경쟁을 경험하면서 신자유주의적인 경쟁사회의 원칙과 속성을 학습하게 되었다(손승영, 2009). 대학입시 이후에도 취업을 둘러싼 경쟁은 멈추지 않으며, 후기산업사회로 들어서면서 청년들은 부모 세대와 달리 학업에서 취업으로 이행하는 경로가 수월하지 않게 되었다. 저성장과 경기침체가 반복되는 사회구조 속에서 청년들은 아무리 높은 학력과 스펙을 갖추어도 취업이 어렵고 불확실하며, 과거보다 훨씬 더 많은 노력과 능력을 요구하는 사회에 적응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이처럼 개인의 성과와 능력을 시장에서 끊임없이 증명해야 하는 현실 속에서 청년들은 일상의 불안, 낙오에 대한 두려움, 탈진, 우울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경험하게 된다(김홍중, 2015). 청년층에서 관찰되는 고립과 은둔 현상은 단순한 개인 문제라기보다는 이러한 사회구조적 현실의 산물로 볼 수 있다. 만성적인 생존 경쟁의 압박 속에서 탈락과 좌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무력감과 우울감이 쌓이게 되고, 현재의 삶으로부터 벗어나고자 하는 심리 상태에 이를 수 있다(김홍중, 2015). 경쟁의 끝에서 상처와 좌절을

반복적으로 경험한 청년들은 결국 자신과 사회의 관계를 끊고, 사회로부터 고립된 상태에 머무르는 삶을 선택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외동자녀인 경우가 증가하여 혼자서 사회화를 경험한 비율이 높은 지금의 청년세대는 자신이 겪고 있는 문제를 나눌 상대를 찾지 못한 채 점차 고립되어 가는 경향이 과거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서울특별시, 2022).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사회로 급격히 전환되면서 사회적 관계망의 단절과 사회성 저하가 우려되는 상황 속에서 1인 가구가 많은 20, 30대 청년들에게서 개인주의화가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서울특별시, 2022). 스스로 고립이나 은둔을 선택하는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그들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문제의식도 점점 커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청년기는 미성년기를 벗어나 독립된 성인으로 성장하는 중요한 발달 단계로, 이 시기에 결혼, 가족 형성, 취업, 직장생활 등 활발한 사회활동을 통해 사회의 주요 구성원으로 자리 잡아간다(김은정, 2015). 그러나 이 시점에서 사회적 관계를 확장해 나가는 대신 오히려 사회와 단절되고 소외되는 청년이 늘고 있는 현실은 비단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 사회를 위해서도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중요한 문제로 다뤄져야 함을 시사한다.

사회적 고립은 개인이 사회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유민상, 신동훈, 2021). 이는 사회적 관계에서 멀어지고 소외되는 상황으로서, 타인과의 접촉이 적은 객관적인 상태뿐만 아니라, 개인이 느끼는 고독감, 외로움과 같은 부정적인 정서도 포함한다(Wenger et al., 1996). Zavaleta et al.(2017)은 사회적 고립을 한 개인이 사회와 다차원적으로 단절된 상태로 보고, 외적인 단절을 외부적 고립(external isolation), 내적인 단절을 내부적 고립(internal isolation)으로 구분하였다. 외부적 고립은 한 개인이 타인과의 관계망이 부재하거나 거의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내부적 고립은 한 개인이 사회적 관계망에서 고립감을 느끼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이처럼 사회적 고립은 한 사람이 사회와 내적·외적으로 단절되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있다. 사회적 고립과 관련된 용어로는 청년 니트, 은둔형 외톨이 등이 있다. 청년 니트(Not in Education, Employment, or Training)는 교육, 고용, 훈련 등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청년들을 지칭하는 용어로서, 직장에 다니지 않거나 교육을 받지 않으며, 직업 훈련에 참여하지 않는 청년을 의미한다(박진원, 한창근, 2024). 이처럼 청년 니트는 개인의 삶보다 그들의 사회적 지위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교육, 고용, 훈련과 같은 영역에서 변화가 있을 경우 사회적 고립의 범주에서 제외될 수 있다. 은둔형 외톨이는 6개월 이상 가족 외 사람들과 사회적 관계를 거의 맺지 않고 자신만의 한정된 공간에 머무르는 사람을 말한다(김혜원, 2022). 은둔형 외톨이는 사회적 고립의 한 형태로서 심각한 고립 상태에 이른 사람들을 지칭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청년 니트나 은둔형 외톨이보다 좀 더 넓은 범위의 사회적 고립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나. 고립·은둔 청년 관련 연구

최근 청년의 사회적 고립 현상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부각됨에 따라 고립·은둔 청년에 관한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 김혜원(2022)은 은둔형 외톨이 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심층 인터뷰와 이들이 참여하는 온라인 카페 게시글 분석을 통해 은둔형 외톨이의 특성과 삶의 경험을 탐색하였다. 연구 결과, 은둔형 외톨이는 주로 20대 남성으로, 만이이면서 대학 재학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경우가 많았다. 이들은 어린 시절 잦은 이사나 전학을 경험한 비율이 높았으며, 심리적 측면에서는 우울, 강박증, 대인예민성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은둔에 이르게 된 주요 계기로는 대인관계의 어려움과 학교나 직장에서의 부적응이 가장 많이 언급되었다. 이들은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주변 사람들과 가족으로부터의 신뢰와 지지, 기다려주는 태도를 가장 필요한 지원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가빈 외(2021)는 청년 은둔형 외톨이와의 심층인터뷰를 통하여 청년층의 사회적 고립 현상이 나타나는 사회적 맥락과 고립·은둔 생활이 지속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그들은 인터뷰 내용 분석을 통하여 ‘은둔·고립 배경’, ‘사회·심리적 고립’, ‘은둔·고립 장기화에 따른 정서·행동 변화’라는 3개의 주제를 도출하였다. ‘은둔·고립 배경’으로 노동시장에서의 소외, 생산적 인간성을 강요하는 사회, 정서적·육체적 소진(burn-out) 상태가 발견되었다. ‘사회·심리적 고립’에는 가정에서의 정서적 고립, 학교에서의 정서적 고립, 경제적 요인으로 인한 정서적 고립이 포함되었다. ‘은둔·고립 장기화에 따른 정서·행동 변화’로 은둔입성기에는 소진된 삶에서의 자발적 철회가 일어나고, 은둔 중반기에는 은둔생활의 만성화가 이루어지며, 은둔 후반기에는 은둔생활 철회를 위한 저항이 일어나는 것이 발견되었다.

한편, 김재희와 박은규(2016)는 한국복지패널 6차(2010년)~10차(2014년) 자료를 활용하여 28세~34세 청년을 대상으로 성인초기 발달과업인 결혼과 취업의 성취유형이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였다. 그들은 결혼과 취업의 성취 유형을 ‘결혼 미성취, 취업 미성취’, ‘결혼 미성취, 불안정 취업 성취’, ‘결혼 미성취, 취업 성취’, ‘결혼 성취, 취업 미성취’, ‘결혼 성취, 불안정 취업 성취’, ‘결혼 성취, 취업 성취’의 6개 유형으로 구분하였다. 분석 결과, ‘결혼 미성취, 취업 미성취’ 유형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 수준이 5개 연도 모두 가장 높게 나타났다. 또한 ‘결혼 성취, 취업 성취’ 유형에 비해 결혼을 성취하지 못한 다른 유형(결혼 미성취, 취업 미성취, ‘결혼 미성취, 불안정 취업 성취’, ‘결혼 미성취, 취업 성취’), 에 해당하는 청년들의 사회적 고립감이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들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대인관계의 어려움, 학교나 직장에서의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 결혼이나 취업과 같은 발달과업의 미성취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청년의 현재 상태나 성인이 된 후 경험한 노동시장, 사회 적응, 대인관계, 경제 상태 등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청년기 이전의 경험은 이어나 전학, 학교 부적응 정도만 다루는데 그치고 있다. 생애주기적 관점에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생애 전반에 걸친 부정적인 경험이 쌓여서 나타날 수 있음을 고려할 때(박주홍 외, 2022; 이상욱 외, 2023),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청년기 경험뿐만 아니라, 아동이나 청소년 시기에 경험한 가정과 학교에서의 구체적인 문제들과 함께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청년이 성인기 이전과 이후에 경험한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상호작용하여 어떻게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생애주기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2. 성인기 전후 경험과 사회적 고립

사회적 고립은 개인을 둘러싼 생태체계적 환경에서 다차원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인생의 어느 시기에나 나타날 수 있다(Clarke & McDougall, 2014; Duncan & Bell, 2015). 하지만 삶의 부정적인 경험이나 열악한 환경 등과 같은 사회적 위험에 노출된 개인이나 집단은 사회적 고립에 더욱 취약할 수 있다. 김춘남 외(2018)는 생애주기에 따른 사회적 고립의 원인을 아동·청소년기, 청장년기, 노년기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그들에 따르면, 아동·청소년기에는 학교적응, 가정환경, 친구관계, 방과 후 활동 등이, 청장년기에는 직업(실업 및 퇴직), 결혼, 이혼, 경제환경, 친구관계가, 노년기에는 퇴직 후 적응, 자녀 및 배우자, 경제환경, 건강상태 등이 사회적 고립의 원인이 될 수 있다. 특히, 아동학대, 방임, 가족의 역기능과 같은 아동기의 부정적인 경험은 생애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Felitti et al., 1998). 가족의 역기능은 아동이 거주하는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포함하는데, 가족 구성원 중 정신질환을 앓고 있거나, 가정폭력을 목격하거나, 부모가 이혼하거나, 가족 중 누군가가 감옥에 수감되거나, 약물중독 상태인 경우가 해당된다.

청년기 사회적 고립은 생애 전반에 걸친 부정적인 경험이 쌓여서 나타날 수 있다(박주홍 외, 2022; 이상욱 외, 2023). 어린 시절과 청소년기에 겪은 다양한 부정적인 사건들이 심리적인 상처로 남고, 이러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서 장기적으로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한 성인이 된 후에도 취업 실패, 직장에서의 부적응, 대인관계 문제 등과 같은 새로운 부정적 경험들이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요소들이 사회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유민상, 신동훈, 2021).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정적 경험을 성인기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가. 성인기 이전의 경험

1) 아동기 부정적 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개인의 아동기 경험은 그들의 미래 결과를 결정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이란 18세 미만의 아동과 청소년이 경험한 외상적 사건을 의미한다(Crouch et al., 2019). 아동기 부정적 경험이 성인기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에 미치는 해로운 영향을 밝히는 연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크게 발전해 왔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의 개념틀(ACEs framework)은 아동기 역경을 회고적으로 측정하고, 이러한 경험이 이후 삶의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할 수 있는 체계를 제공해 왔다(Hughes et al., 2016). 초기 아동기 부정적 경험 연구에서는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아동 학대(신체적, 심리적, 성적 학대)와 가정 기능 장애(물질 남용, 정신질환, 어머니에 대한 폭력, 가정 내 범죄 행위)로 설명하였고, 이후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 연구에서는 가정 기능 장애 항목에 부모의 별거 또는 이혼이 추가되었다(Anda, 1999). 또한 이후 연구에 방임(정서적 방임과 신체적 방임)이 추가되었다(Anda, 2009; Dong et al., 2004). 더 나아가, 원래의 아동기 부정적 경험 연구에서 제시된 개념(아동 학대, 방임, 가정 기능 장애)을 넘어, 또 다른 유형의 아동기 역경 경험을 포함해야 한다는 제안도 제기되었다. 여기에는 또래 피해 경험(학교 폭력), 지역사회 폭력에의 노출(안전하지 않은 이웃 환경), 폭력 목격 경험, 아동기 빈곤, 가까운 사람이 심각한 사고나 질병을 겪은 경험, 평균 이하의 학업 성취, 부모의 잦은 다툼, 친한 친구의 부재, 차별을 느낀 경험, 또는 위탁가정에서의 생활 등이 포함된다(Finkelhor, 2013; Cronholm, 2015).

아동기 부정적 경험 이력이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 양극성 장애, 자살, 물질 남용과 같은 다양한 정신건강 문제를 겪을 위험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uller-Thomson et al., 2016; Leza et al., 2021; Merrick et al., 2017). 아동기 부정적 경험은 사회적 기능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아동기 부정적 경험을 한 사람들은 신뢰의 결여, 미숙한 정서 조절 능력, 부적응적 대처 전략으로 인해 또래에 비해 건강한 관계를 형성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으며, 그 결과 성인기 이후 사회적 고립과 외로움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oole et al., 2018; Sheikh, 2018).

2) 성인기 이전의 부정적 경험과 사회적 고립

성인기 이전에는 가정과 학교에서의 부정적인 경험이 사회적 고립과 연관되는 것으로 보고된다. 자녀에 대한 과잉보호, 방치, 거부적이고 냉소적인 양육태도는 자녀의 사회적 고립을 높이는 요인이 될 수 있다. 부모의 과잉보호는 자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기 때문에, 자녀로 하여금 의존적이며 사소한 일에도 심한 스트레스를 받게 하며, 타인의 감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타인을 배려하지 못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과잉보호를 받으며 성장한 아이는 청소년기에 접어들면서 친구관계에서 문제를 경험하거나 경쟁적인 학업 분위기에 쉽게 좌절하고 사회적 상황을 두려워하게 되면서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이연실, 2012). 이와 반대로 부모가 자녀

에게 지나치게 무관심하고 자녀를 방치할 경우, 자녀는 부모에게 관심과 사랑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하며 부모를 비롯하여 타인과 관계 맺기를 거부하고 정서적으로 고립될 수 있다(서경현 외, 2013). 또한 부모가 자신의 스트레스를 자녀에게 표출하여 자녀에게 정신적·물리적 폭력을 가하거나 자녀를 거부하거나 냉소적으로 대할 경우, 자녀는 대인관계 맺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타인에게 적대적 감정을 갖게 되어 사회적 관계 맺기를 거부할 수 있다(이경선, 2015).

가족 중에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정서적 문제를 가진 구성원이 있을 경우, 가족 역동(family dynamics)에 의해 가족 간 갈등, 의사소통 단절, 정서적 거리감 등을 유발될 수 있다(김연옥 외, 2022). 어릴 때 부모나 가족이 불안, 우울 등 부정적인 정서 상태를 자주 표현하거나 적절히 조절하지 못하는 모습을 반복적으로 경험하게 되면, 아이가 감정 표현과 조절 방법을 제대로 배우지 못하게 되며, 타인의 감정에 대한 비합리적인 해석을 할 수 있다(Zimmer-Gembeck et al., 2021). 또한 어린 시절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부모나 가족과의 관계에서는 안정 애착이 형성되기 어렵기 때문에, 성인이 된 후에 타인에게 정서적 지지를 기대하지 않거나 과도하게 의존하는 태도를 보일 수 있다(Barnes & Theule, 2019). 더 나아가 타인과 갈등이나 불편한 감정을 피하려는 경향이 강해지면서 사회적 회피 행동이 강화될 수 있다.

또래 집단에서의 왕따, 은따, 학교폭력 경험은 개인에게 상처와 트라우마가 되어 학교 등교를 거부하게 하거나, 학교에 등교하더라도 또래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하는 학교 부적응을 야기할 수 있다(김세원, 2018; 이지민, 김영근, 2021). 이러한 경험은 성인이 된 후에도 영향을 미쳐 대인관계를 두려워하고 기피하게 하며 사회적으로 고립되게 할 수 있다(윤철경 외, 2021). 학령기에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할 경우, 아이는 새로운 환경에서 다시 친구를 만들고 관계를 형성하는 과정을 반복적으로 경험하면서 기존의 사회적 네트워크를 유지하기 어려워지고, 새로운 사람들과의 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피로감을 느낄 수 있다(Vernberg et al., 2006). 이사는 단순히 거주지가 바뀌는 것을 넘어, 삶의 기반이 이동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중대한 변화다. 연구에 따르면, 이사 경험이 있는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친구를 사귀는 데 어려움을 겪고, 또래 관계도 상대적으로 덜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최정운, 2016). 은둔형 외톨이를 비롯하여 사회적으로 고립된 사람들은 대체로 어릴 적부터 조용하고 내성적인 성향을 보이며, 사회적 기술이나 스트레스 대처 능력이 부족한 경우가 많다(김혜원, 2022). 이러한 특성을 지닌 아이들에게 이사나 전학은 다른 아이들보다 더 큰 심리적 부담이 될 수 있다. 낯선 환경과 새로운 사람들 속에서 장기간 긴장과 불안을 느끼거나, 사회적 기술 부족으로 또래와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것이다. 학령기의 잦은 전학이나 이사는 아이의 안정적인 대인관계 형성, 지역사회에서의 소속감과 유대감 형성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잠재적 요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나. 성인기 이후의 경험

대학을 인생 성공의 주요 지표로 여기는 한국 사회에서 고등학교 졸업 후의 진학 실패는 청년으로 하여금 또래와의 비교에서 오는 열등감, 사회적으로 낙오됐다는 느낌을 갖게 할 수 있다. 대학 진학에 성공한 또래들은 캠퍼스 생활, 대외활동, 인턴 등 다양한 경험을 하지만, 진학하지 못한 청년은 이런 경험을 공유하지 못하고, 어디에도 소속되지 못함을 느끼며 관계에서 소외감을 느낄 수 있다(류주연 외, 2023). 이는 자기 비하, 사회적 자신감 결여, 대인기피로 이어져 대인관계의 단절을 초래할 위험이 있다(변금선, 김정숙, 2024).

청년기는 학교 교육을 마치고 노동시장에 진입하여 경제적 독립을 시작하고 직장생활이나 결혼을 통해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 나가는 시기이다. 그러나 오늘날 청년들은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학자금 대출 상환, 주거비 마련 등 경제적 부담으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날로 복잡해지는 사회 구조와 치열해지는 경쟁 속에서, 개인이 경쟁력을 키우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확보하기 위해 결혼과 취업을 뒤로 미루는 현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김은정, 2014). 사회적·경제적 독립이 쉽지 않은 현실 속에서 취업 및 결혼의 미성취가 청년의 사회생활 확대 기회를 단절시키고 정신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특히, 장기화되는 청년 취업난은 청년들의 독립성과 자아실현 기회를 빼앗고, 사회적 소속감을 약화시키고 있다(김재희, 박은규, 2016). 이는 자신과 삶에 대한 통제력 상실로 이어지며, 대인관계에서의 고립과 더불어 우울, 좌절 등의 심리적 문제를 심화시킨다(임선영, 김태현, 2005; 정연순, 2014). 성인 초기 발달과업 성취 여부가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한 김재희와 박은규(2016)의 연구에서 취업과 결혼을 모두 성취하지 않은 청년 집단은 취업이나 결혼을 성취한 집단에 비해 사회적 고립감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청년들이 사회로 진출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기술과 사회 적응 능력을 갖추어야 하지만, 이를 충분히 갖추지 못할 경우 좌절감을 느끼고 사회 진출을 포기하면서 은둔하게 될 수 있다(이향남, 2008).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과 원인을 질적 연구 방법으로 분석한 노가빈 외(2021)의 연구에 따르면, 은둔 생활을 시작하기 전에 청년들은 주로 직장, 아르바이트, 학교생활 등 교육에서 노동으로의 이행 과정을 거쳤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과중한 노동, 불필요한 업무, 실수에 대한 상사와 동료의 폭언 등을 경험하였고, 부당해고와 저임금 일자리의 반복 등 불합리하고 불안정한 노동 환경에 놓이게 되면서 점차 극심한 피로감과 의욕 저하, 우울감을 느끼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그들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가정과 사회 전반에서 성취와 생산을 요구받으며 기능적인 인간이 되기를 강요 받아 온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자들은 부모에게 인정받기 위해 사회적 지위를 갖추어야 한다는 강박감과 성과를 통해서만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성과주의적 압박을 경험하였고, 이러한 과정에서 무력감과 우울감을 느끼고 사회적으로 도태되고 고립되는 경험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청년의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한 박주홍 외(2022)의 연구에서는 실직과 구직의 장기화가 청년 은둔의 결정적 계기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들에게 직장과의 일은 중요한 의미가 있으나, 갖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좋지 않았고 다른 사람보다 더 스펙을 쌓고 사회 경험을 넓힐 여건이 따라주지 않았으며, 좋아하는 일을 찾고자 하였으나 원하는 결과를 얻지 못하는 사이 나이를 먹고 방향의 기간이 길어지면서 점점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기는 타인과의 친밀감과 사회적 소속감 확보가 중요한 발달과업이다(Erikson, 1968). 이 시기에 형성된 친구, 연인, 멘토 등과의 관계를 통하여 청년들은 인간관계에 대한 기본적인 신뢰감이 자리 잡게 되지만, 이러한 관계 형성 과정에서 경험할 수 있는 배신은 청년으로 하여금 타인에 대한 일반화된 불신을 갖게 하여 새로운 관계를 맺는 데 심리적 장벽이 될 수 있다(박주홍 외, 2022). 사회적 상처에 대한 과잉 방어로 사람들과의 거리두기, 새로운 관계에 대한 경계심, 자발적 고립 등의 행동이 나타날 수 있다.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의 은둔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한 박주홍 외(2022)의 연구에서 사랑하는 연인이나 친한 친구의 배신은 인간에 대한 두려움, 증오, 불신을 야기하고 삶의 의욕을 감소시켜, 인간관계를 안 하는 게 낫다는 생각을 하게 하여 인간관계 자체를 꺼리게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 성인기 전 혹은 그 이후에 경험한 가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이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은 자녀가 친구들과의 모임, 대외활동, 취미활동, 교육 프로그램 참여 등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지 못하게 만들어, 또래와의 교류 기회를 줄이고 자연스러운 사회적 접촉을 제한할 수 있다(이지민, 김영근, 2021). 또한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녀는 주변 또래와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껴 심리적으로 위축되고, 대인관계에서 자신감을 잃을 수 있다(노가빈 외, 2021). 더 나아가, 경제적 어려움은 가정 내 스트레스와 갈등을 증가시켜, 자녀가 감정적 어려움을 가족과 공유하지 못하거나 위로받지 못하여 외로움을 느끼게 할 수 있다(이상욱 외, 2023).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을 질적으로 분석한 이상욱 외(2023)의 연구에서 참여자들은 어린 시절 가정의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자신이 갖고 싶은 것을 못 가지고 학원도 못 다니는 생활에 대한 불만으로 가족과의 불화가 생기면서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제적 빈곤은 잦은 이사와 전학으로 이어져 사회적 고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 노가빈 외(2021)의 연구에서 한 참여자는 어린 시절 경제적 빈곤으로 기초수급에 의존하거나 주거지를 계속 이동했던 경험으로 안정적인 사회적 관계 형성이 어려웠고, 성인이 되어서도 더욱 악화되는 경제 상황에 사회활동을 할 수 없을 만큼 두려움을 느꼈으며, 이것이 고립의 계기이자 강화 요인이 되었다고 하였다. 박주홍 외(2022)의 연구에서 한 참여자는 성인이 되어서 반복되는 취직 실패와 백수 생활의 장기화로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서 돈이 없어서 밖으로 나가질 못했고 나갈 의욕도 생기지 않게 되었으며 나중에는 밖에 나가는 것이 두려워지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부모나 돌봐주던 조부모의 사망, 키우던 반려동물의 죽음, 이성 친구와의 이별 등을 경험한 청년은 애착 대상으로부터 얻었던 심리적 안정감, 소속감, 사랑의 주요 원천이 사라지기 때문에, 인간관계나 일상에 대한 흥미를 상실하게 되고 이것이 정서적 위축과 타인과의 단절로 이어질 수 있다(박주홍 외, 2022; 이상욱 외, 2023).

I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및 자료

본 연구는 분석을 위하여 서울특별시(2022)에서 조사한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자료를 활용하였다.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는 서울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청년 5,513명을 대상으로 진행되었다. 조사 내용은 성별, 연령, 학력과 같은 일반적인 인구사회학적 특성, 고립·은둔 성향, 생활 실태, 지원 필요사항 등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의 최종 표본인 5,513명의 청년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의 성별, 연령, 학력 등 인구사회학적 특성은 <표 1>과 같다. 연구대상은 남자 2,680명(48.6%), 여자 2,833명(51.4%)로 구성되었고, 연령은 19~24세 676명(12.3%), 25~29세 1,701명(31%), 30~34세 1,530명(27.8%), 35~39세 1,597명(29%)로 구성되었다. 학력은 중졸 이하 45명(0.8%), 고졸 1,114명(20.2%), 대졸 3,951명(71.7%), 대학원 이상 403명(7.3%)으로 구성되었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	구분	빈도(명)	%
성별	남	2,680	48.6
	여	2,833	51.4
나이	19세~24세	676	12.3
	25세~29세	1,710	31.0
	30세~34세	1,530	27.8
	35세~39세	1,597	29.0
	학력	중졸 이하	45
	고졸	1,114	20.2
	대졸	3,951	71.7
	대학원 이상	403	7.3
		N=5,513	

2. 측정도구

가. 종속변수

종속변수인 사회적 고립은 유민상과 신동훈(2021), 황수진 외(2021)의 연구에서 활용된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척도의 문항들을 바탕으로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연구진이 구성한 “나는 나와 같이 있어 줄 사람이 부족하다”, “나는 도움을 청할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나는 혼자 남겨진 것 같다고 느껴진다”, “나는 사람들 사이에서 고립되어 있다고 느껴진다”의 4문항으로 측정되었다. 문항에 대한 응답은 “전혀 그렇지 않다=1”, “별로 그렇지 않다=2”, “가끔 그런 편이다=3”, “항상 그렇다=4”로 측정되었다. 문항 간 신뢰도(Chronbach α)는 0.888로 나타나 문항 간 응답의 내적 일관성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는 4문항을 평균한 값을 사회적 고립 변수로 사용하였으며, 응답값이 높을수록 사회적 고립 수준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나. 독립변수

본 연구는 독립변수를 청년이 성인기 이전에 경험한 부정적 경험과 성인기 이후에 경험한 부정적 경험으로 구분하여 구성하였다. 측정 문항들은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조사 연구 결과(임형문 외, 2020)와 류정희 외(2018)가 변안한 부정적 생애경험(Adverse Childhood Experience) 척도를 토대로 생애 전반기의 부정적 경험(아동·청소년기, 청년기)을 측정하는 지표를 구성한 유민상과 신동훈(2021)의 연구를 참고하여 구성되었다. 성인기 이전에 경험한 부정적 경험은 “부모님(혹은 그 외의 나를 키워준 사람)이 나를 심하게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했던 경험”,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불안, 우울 등)”,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변수로 구성하였다. 성인기 이후에 경험한 부정적 경험은 “가까운 사람이 취업 문제로 나를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 “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 다녀야 했던 경험”, “내가 원했던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 “내가 원했던 때에 대학 입학 못했던 경험”, “내가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 “내가 원했던 때에 취업을 못했던 경험”, “가까웠던 사람과 헤어져야 했던 경험(절교, 죽음 등)”, “믿었던 사람이 내게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 변수로 구성되었다. 각 항목은 “없다=1”, “있다=2”로 응답되었다.

3. 분석 방법

본 연구는 청년의 성인기 전후 부정적 경험이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활용하였다. 의사결정나무분석은 데이터 간의 관계, 규칙, 패턴 등을 탐색하고 이를 모형화하는 대표적인 데이터마이닝 기법이다(김구, 2002). 이 기법은 재귀적 분할(recursive partitioning)을 통해 종속변수에 영향을 미치는 독립변수의 중요도를 나무 구조 형태로 시각화하여, 분석 결과의 해석과 설명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Shmueli et al., 2011). 특히 의사결정나무는 유의미한 독립변수를 식별하고, 두 개 이상의 변수들이 결합하여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효과적으로 분석할 수 있다(김구, 2002). 이에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성인기 전후의 부정적 경험 변수들의 결합 효과 및 변수들의 중요도를 분석하고자 한다.

의사결정나무 분석에는 CHAID(Chi-squared Automatic Interaction Detector)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CHAID는 통계적 유의확률(p-value)을 기준으로 변수의 분할과 병합을 반복하여, 최적의 나무구조를 형성하는 알고리즘

이다(이지연, 이영주, 2021).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고립을 이분형 또는 범주형 변수가 아닌 연속변수로 처리하여 회귀형 의사결정나무 분석을 진행하였다. 사회적 고립은 복수 문항을 평균하여 산출한 척도 점수로, 개인의 고립 수준이 연속적인 스펙트럼 상에서 나타난다는 특성을 지닌다. 이를 상위 25% 또는 평균 대비 일정 표준편차 이상과 같은 상·하위 집단으로 임의 구분할 경우, 임계값 설정에 따른 자의성이 개입될 수 있으며 고립 수준의 미세한 차이에 대한 정보 손실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적 고립 수준 자체의 변화를 최대한 보존하고, 부정적 경험 변수들의 결합에 따라 고립 수준이 어떻게 점진적으로 심화되는지를 탐색하기 위해 연속형 종속변수를 유지하였다. CHAID 알고리즘은 각 분기에서 집단 간 평균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기준으로 분할을 수행하므로, 사회적 고립 수준의 차이를 데이터 기반으로 식별하는 데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분할과 병합을 위한 유의수준을 0.05로 설정하였다. 모형의 과소적합이나 과대적합을 방지하기 위해, 사전 가지치기(pre-pruning) 기법을 활용하여 나무의 최대 깊이를 사전에 제한하였다. 나무의 복잡성, 규칙의 타당성, 노드 수 등을 고려하여 최대 깊이는 3으로 설정하였는데, 이는 분기 구조가 과도하게 복잡해질 경우 노드 수 증가로 인해 규칙 해석이 어려워지고 정책적 시사점 도출이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예비 분석 결과에서도 깊이 3을 초과할 경우 일부 노드의 표본 수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추정치의 안정성이 저하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또한 분할을 위한 최소 표본 수는 부모 노드 100명, 자식 노드 50명으로 설정하였다. 이는 각 노드에서 산출되는 사회적 고립 평균값이 충분한 표본에 기반하도록 하여 우연적 변동에 의한 분할을 방지하고, 분석 결과의 일반화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이다. 이러한 기준은 본 연구의 표본 규모와 연구 목적을 고려할 때 합리적인 수준의 안정성과 해석 가능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는 설정으로 판단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의사결정나무 모형의 타당성과 안정성을 평가하기 위해 분할 기준, 과적합 통제 전략, 교차검증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CHAID 알고리즘은 각 분기에서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간의 관계를 카이제곱 검정 기반의 유의확률(p-value)에 따라 평가하며, 이를 통해 노드 간 종속변수 평균 차이가 통계적으로 가장 크게 나타나는 방향으로 분할을 수행한다. 즉, 각 분기는 불순도(impurity)를 최대한 감소시키는 방향으로 형성되며, 이는 사회적 고립 수준의 집단 간 변별력을 높이는 역할을 한다. 한편, 의사결정나무는 분기 수가 증가할수록 훈련 자료에 과도하게 적합될 위험이 있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전 가지치기(pre-pruning)를 통해 과적합을 통제하였다. 구체적으로 나무의 최대 깊이를 3으로 제한하고, 부모 노드와 자식 노드의 최소 표본 수를 각각 100명과 50명으로 설정함으로써, 표본 수가 지나치게 작은 노드에서 우연적 변동에 의해 분기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였다. 더 나아가 본 연구에서는 10-fold 교차검증을 실시하여 모형의 안정성을 검토하였다.

본 연구는 IBM SPSS Statistics 28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통계 분석 및 의사결정나무분석을 수행하였다. 본 연구는 성인기 전후의 부정적 경험이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입체적으로 탐색하기 위해, 분석을 성인기 이전 경험 모형, 성인기 이후 경험 모형, 두 시점을 통합한 모형의 세 가지로 구분하여 수행하였다. 이러한 분석 설계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특정 시점의 단일 사건에 의해 설명되기보다는, 생애 전반에서의 경험이 누적되고 상호작용한 결과일 가능성을 고려한 것이다. 성인기 이전 경험만을 포함한 모형은 아동·청소년기에 형성된 관계 경험과 정서적 환경이 이후 사회적 고립의 기초 위험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탐색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인기 이후 경험 모형은 진학, 취업, 대인관계와 같은 성인 초기 발달과정의 좌절이 사회적 고립을 촉발하거나 심화시키는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마지막으로 성인기 이전과 이후 경험을 통합한 모형은 초기 생애 경험과 이후의 부정적 사건이 결합될 때 사회적 고립 수준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함으로써, 생애주기적 누적 효과와 경로 의존성을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

본 연구는 성인기 전후의 부정적 경험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어떠한 경로로 작용하는지를 탐색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이에 따라 성인기 전후의 부정적 경험 이외의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통제변수로 포함하지 않고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는 본 연구가 특정 집단 간 차이를 비교하거나 인과적 효과를 엄밀하게 추정하는 데 목적이 있기보

다는, 생애주기 전반에서 경험한 부정적 사건들의 조합과 상호작용이 사회적 고립에 어떠한 패턴으로 나타나는지를 탐색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의사결정나무분석은 변수 간의 상호작용과 분류 규칙을 도출하는 데 초점을 둔 방법으로, 특정 통제변수를 사전에 설정하기보다 다양한 경험 변수들의 결합에 의해 형성되는 위험집단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김구, 2002). 또한 인구사회학적 변수는 사회적 고립의 구조적 배경을 설명하는 요인일 수 있으나, 본 연구의 주요 관심은 생애과정에서 축적된 부정적 경험의 영향에 있으므로 분석 모형에서는 이를 포함하지 않았다.

IV. 연구 결과

1.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의사결정나무분석에 활용된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는 <표 1>과 같이 나타났다. 성인기 이전에 부정적 경험을 한 청년의 비율은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 39.2%, 부모님이 나를 심하게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했던 경험 33.5%,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 42.5%,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35.5%,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 26.6%, 학교나 동네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33.9%로 나타났다. 성인기 이후에 경험한 부정적 경험을 한 청년의 비율은 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 다녀야 했던 경험 10.1%, 가까운 사람이 취업 문제로 나를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 27.6%, 내가 원했던 때에 대학 입학이 못했던 경험 29.8%, 내가 원했던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 44.7%, 내가 원했던 때에 취업을 못했던 경험 47.4%, 내가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 50.6%, 믿었던 사람이 내게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 33.2%, 가까웠던 사람과 헤어져야 했던 경험 42.9%로 나타났다.

표 2. 주요 변수의 기술통계

구분	변수명	변수값	빈도(명)	퍼센트(%)
성인기 이전의 부정적 경험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	없다	3,353	60.8
		있다	2,160	39.2
	부모님이 심하게 때리거나 꾸짖고 모욕했던 경험	없다	3,666	66.5
		있다	1,847	33.5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	없다	3,171	57.5
		있다	2,342	42.5
	가까운 사람을 잃은 경험	없다	3,557	64.5
		있다	1,956	35.5
	전학이나 이사를 자주 한 경험	없다	4,049	73.4
		있다	1,464	26.6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없다	3,642	66.1	
	있다	1,871	33.9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	돈이 없어서 학교를 그만 다녀야 했던 경험	없다	4,955	89.9
		있다	558	10.1
	가까운 사람이 취업 문제로 나를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	없다	3,993	72.4
		있다	1,520	27.6
	내가 원했던 때에 대학 입학이 못했던 경험	없다	3,868	70.2
		있다	1,645	29.8
	내가 원했던 학교에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	없다	3,049	55.3
		있다	2,464	44.7
	내가 원했던 때에 취업을 못했던 경험	없다	2,901	52.6
		있다	2,612	47.4

구분	변수명	변수값	빈도(명)	퍼센트(%)
	내가 원했던 직장에 들어가지 못했던 경험	없다	2,725	49.4
		있다	2,788	50.6
	믿었던 사람이 내게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	없다	3,683	66.8
		있다	1,830	33.2
	가까웠던 사람과 헤어져야 했던 경험	없다	3,148	57.1
		있다	2,365	42.9
종속변수	사회적 고립	평균 (표준편차)	2.24 (0.78)	

N=5,513

2. 의사결정나무분석

성인기 이전의 부정적 경험,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 성인기 이전과 이후의 부정적 경험과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는 각각 [그림 1], [그림 2], [그림 3]과 같고,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높은 조합의 노드의 순서를 나타내는 이익도표는 <표 2>와 같다. 10-fold 교차검증을 통해 위험도를 추정하여 의사결정 나무 분석 모형의 안정성을 검증한 결과는 <표 3>과 같다. 교차검증 결과, 세 모형 모두에서 훈련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나타내는 재치환 추정값과 검증 데이터에 대한 성능을 나타내는 교차검증 추정값 간의 차이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본 모형이 훈련 데이터에 과도하게 최적화된 과적합 상태가 아니며, 비교적 안정적이고 일반화 가능한 성능을 갖추고 있음을 의미한다(송태민, 송주영, 2013).

먼저, 성인기 이전의 부정적 경험과 사회적 고립의 의사결정나무 이익도표에서 사회적 고립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노드는 13으로서 763명(13.8%)이 속하며, 이 그룹 청년의 사회적 고립 평균값은 2.698이었다. 나무구조의 가장 위에 위치한 네모(노드 0)는 뿌리마디로서, 예측변수(독립변수)가 투입되기 전 종속변수(사회적 고립)의 평균값을 나타낸다. 뿌리마디에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2.241로 나타났다. 뿌리마디 하단의 가장 상위에 위치하는 요인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측하는 데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높다고 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2.241에서 2.548로 증가하였다. 성인기 이전의 부정적 경험과 관련된 사회적 고립 위험요인 중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으며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이전의 2.548에서 2.632로 증가하였다. 청년의 사회적 고립 위험요인 중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으로 나타났다. 즉,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으며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고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이전의 2.632에서 2.698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가장 높은 집단은 노드 13으로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으며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고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이 있는 청년이라고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과 사회적 고립의 의사결정나무 이익도표에서 사회적 고립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노드는 14로서 483명(8.8%)이 속하며, 이 그룹 청년의 사회적 고립 평균값은 2.792이었다. 뿌리마디에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2.241로 나타났다.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 중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의 영향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이 있는 경우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2.241에서 2.591로 증가하였다.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과 관련된 사회적 고립 위험요인 중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믿었던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이 있고 믿었던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이전의 2.591에서 2.711로 증가하였다. 청년의 사회적 고립 위험요인 중 믿었던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원했던 때에 대학 입학을 못했던 경험으로 나타났다. 즉,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이 있고 믿었던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이 있으며 원했던 때에 대학 입학을 못했던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이전의 2.711에서 2.792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가장 높은 집단은 노드 14로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이 있고, 믿었던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이 있으며, 원했던 때에 대학 입학을 못했던 경험이 있는 청년 청년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성인기 이전과 이후의 부정적 경험과 사회적 고립의 의사결정나무 이의도표에서 사회적 고립 수준이 가장 높게 나타난 노드는 14로서 547명(9.9%)이 속하며, 이 그룹 청년의 사회적 고립 평균값은 2.826이었다. 뿌리마디에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2.241로 나타났다. 성인기 이전과 이후의 부정적 경험 중 사회적 고립에 미치는 영향력이 가장 큰 변수는 성인기 이전에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었다. 즉,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는 경우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2.241에서 2.548로 증가하였다. 성인기 이전과 이후의 부정적 경험과 관련된 사회적 고립 위험요인 중 성인기 이전에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성인기 이후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기 이전에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성인기 이후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이전의 2.548에서 2.717로 증가하였다. 청년의 사회적 고립 위험요인 중 성인기 이후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 다음으로 중요한 변수는 성인기 이후 믿었던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기 이전에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성인기 이후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이 있으며 믿었던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이 있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이전의 2.717에서 2.826으로 증가하였다. 이처럼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가장 높은 집단은 노드 14로 성인기 이전에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성인기 이후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이 있으며, 믿었던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이 있는 청년이라고 할 수 있다.

성인기 이전의 부정적 경험,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 두 시점을 통합한 부정적 경험을 각각 투입한 의사결정나무 분석 결과를 비교하면, 세 모형 모두에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단일한 부정적 경험보다는 복수의 부정적 경험이 결합된 경우 가장 높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특히 각 모형의 이의도표에서 사회적 고립 평균값이 가장 높은 노드는 성인기 이전 모형에서 2.698, 성인기 이후 모형에서 2.792, 통합 모형에서 2.826으로 나타나, 부정적 경험이 생애과정 전반에 걸쳐 누적될수록 사회적 고립이 더욱 심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모형별로 사회적 고립을 예측하는 핵심 위험요인을 살펴보면, 성인기 이전의 부정적 경험 모형에서는 학교나 동네에서의 괴롭힘이나 따돌림 경험이 가장 상위 분기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 모형에서는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이 가장 중요한 예측요인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성인기 이전에는 또래 및 일상적 사회관계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성인기 이후에는 사회진입 과정에서의 실패나 압박 경험이 사회적 고립 형성에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한편 성인기 이전과 이후의 부정적 경험을 동시에 고려한 통합 모형에서도 성인기 이전의 학교나 동네에서의 괴롭힘이나 따돌림 경험이 가장 상위 분기 요인으로 나타났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이는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을 통제한 상태에서도 성인기 이전의 부정적 사회관계 경험이 청년기 사회적 고립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통합 모형에서 성인기 이후의 취업·진로 압박 경험과 신뢰 관계의 붕괴 경험이 순차적으로 결합될 때 사회적 고립이 가장 높게 나타난 점은 초기의 관계 손상이 이후 사회적 좌절 경험과 결합되면서 사회적 고립이 심화되는 연쇄적 위험 구조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청년의 사회적 고립은 특정 시점의 부정적 경험에 의해 단편적으로 형성되기보다는 성인기 이전의 관계적 부정 경험을 출발점으로 하여 성인기 이후 사회진입 과정에서의 부정적 경험이 누적·결합되면서 강화되는 과정적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표 3. 부정적 경험과 사회적 고립에 관한 의사결정나무 이익도표

성인기 이전				성인기 이후				성인기 이전과 이후			
노드	N	퍼센트	평균	노드	N	퍼센트	평균	노드	N	퍼센트	평균
13	763	13.8%	2.698	14	483	8.8%	2.792	14	547	0.099	2.826
12	286	5.2%	2.530	12	92	1.7%	2.753	10	109	0.020	2.706
14	436	7.9%	2.518	10	115	2.1%	2.654	13	320	0.058	2.529
10	473	8.6%	2.417	13	372	6.7%	2.606	12	534	0.097	2.520
11	386	7.0%	2.301	11	573	10.4%	2.387	9	544	0.099	2.369
8	295	5.4%	2.295	9	860	15.6%	2.328	11	470	0.085	2.270
9	670	12.2%	2.236	8	984	17.8%	2.179	8	755	0.137	2.217
7	2204	40.0%	1.937	7	2034	36.9%	1.9494	7	2234	0.405	1.938

표 4. 교차검증 결과

방법	성인기 이전		성인기 이후		성인기 이전과 이후	
	추정값	표준오차	추정값	표준오차	추정값	표준오차
재치환	0.523	0.009	0.524	0.009	0.513	0.009
교차검증	0.528	0.009	0.529	0.009	0.521	0.009

그림 1. 성인기 이전의 부정적 경험과 사회적 고립에 관한 의사결정나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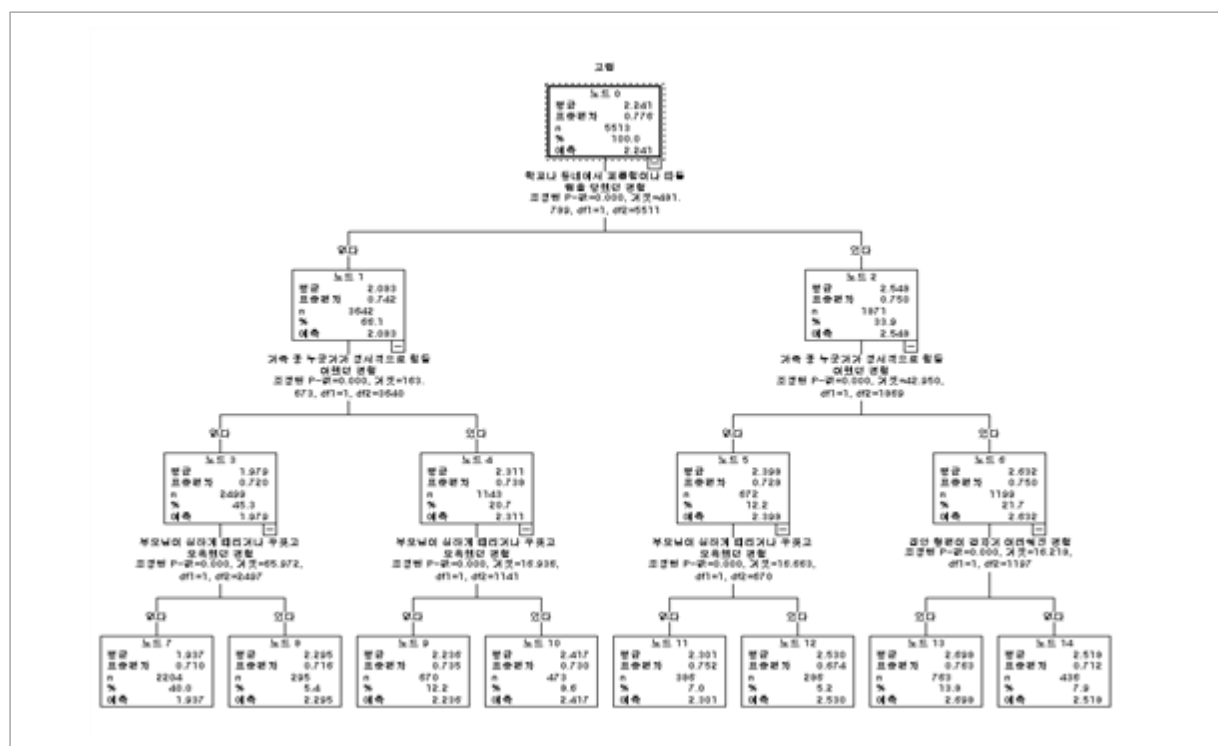


그림 2.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과 사회적 고립에 관한 의사결정나무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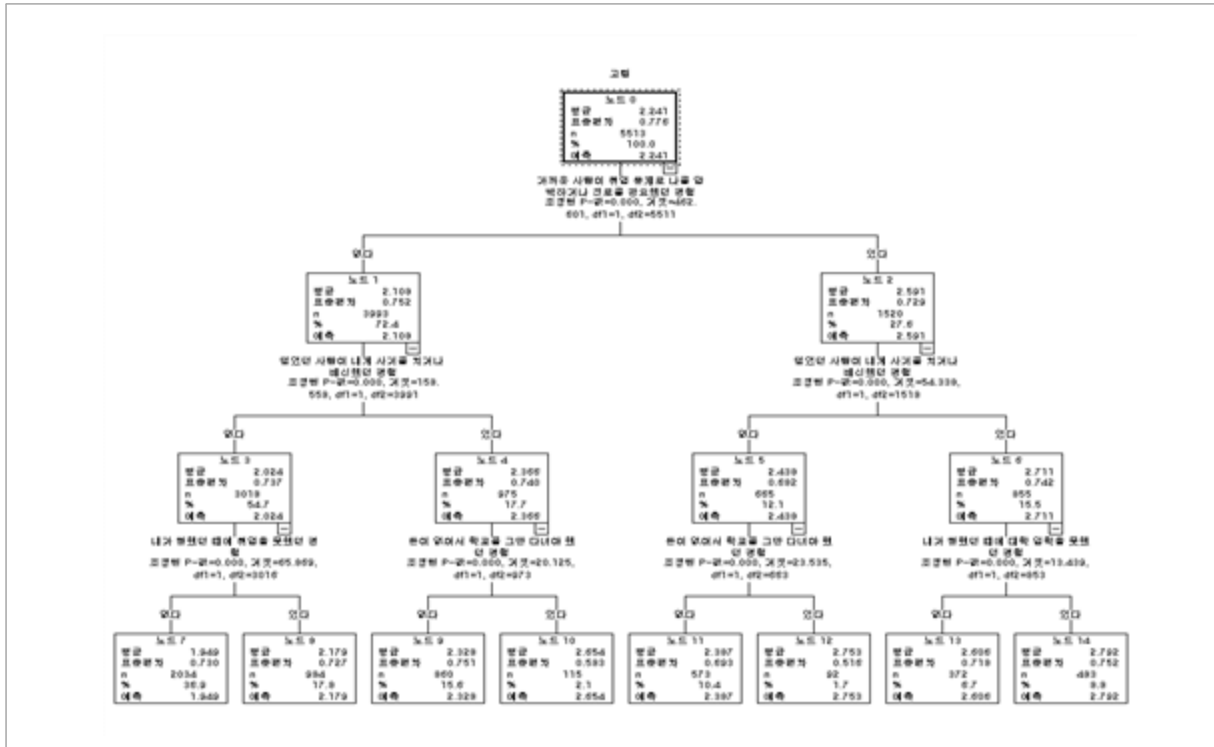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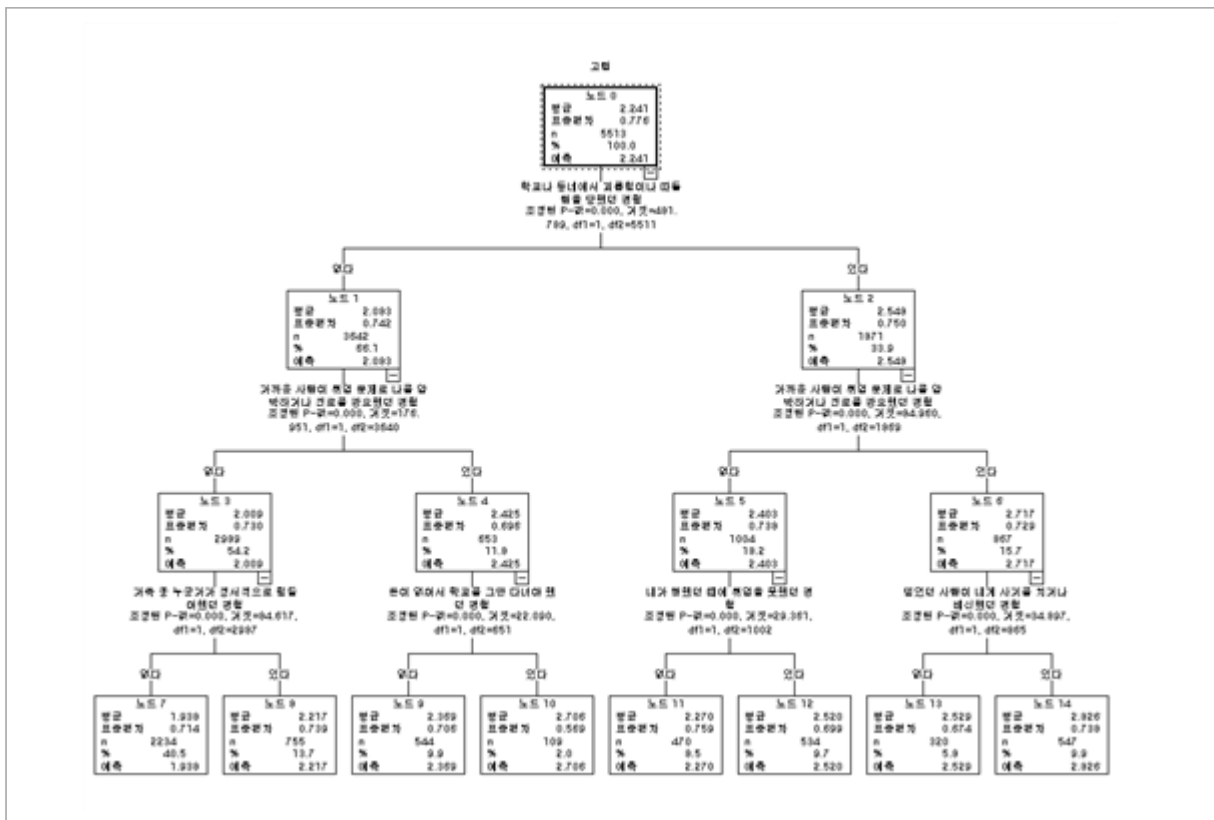


그림 3. 성인기 이전과 이후의 부정적 경험과 사회적 고립에 관한 의사결정나무분석



V. 결론 및 고찰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활용하여 성인기 전후의 부정적 경험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성인기 이전의 부정적 경험 중 사회적 고립이 가장 높은 청년 집단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기 이전에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으며,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했던 경험이 있고,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진 경험이 있는 청년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학창시절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가족의 정서적 문제, 가난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과 관련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를 지지한다(노가빈 외, 2021; 윤철경 외, 2021; Barnes & Theule, 2019).

아동기나 청소년기에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은 타인에 대한 신뢰를 약화시키고, 타인과의 관계 형성에 대한 두려움을 심어줄 수 있다(김세원, 2018). 이러한 경험은 트라우마로 남아 사회적 기능을 저해하고 새로운 관계를 맺거나 사회적 활동에 참여하는 것을 꺼리게 할 수 있다(이지민, 김영근, 2021). 어린 시절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이 있고 가족 중 누군가가 정서적으로 힘들어하는 것을 함께 경험한 경우, 청년이 된 후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가족 구성원이 지속적으로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성장한 아동은 가정에서 충분한 정서적 지지와 심리적 안정감을 경험하기 어려울 수 있다. 특히 부모가 우울이나 불안 등으로 정서적 여유가 부족한 경우, 자녀의 감정에 공감하거나 적절하게 반응하기 어려워 자녀의 정서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Breaux et al., 2016). 이러한 경험이 반복될 경우 아동은 타인에게 정서적으로 의지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는 관계 경험이 제한될 수 있으며, 이는 대인관계에 대한 신뢰 형성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홍진이, 한기백, 2015). 결과적으로 가정 내에서 충분한 정서적 지지를 경험하지 못한 개인은 정서적 불안정이나 대인관계 회피 성향을 보일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러한 특성이 청년기 사회적 관계 형성을 어렵게 만들어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질 수 있다. 더욱이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했던 경험이 있는 아동에게 가족의 정서적 어려움까지 겹치면 아이는 밖에서도 위험하고 안에서 의지할 곳이 없는 상태가 되어 사회적 고립에 더욱 취약한 상태로 성장할 수 있다. 성인기 이전에 이러한 부정적 경험뿐만 아니라 집안 형편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경험까지 한 청년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더욱 커질 수 있다. 경제적 자원이 부족하면, 사회적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게 되고, 사회적 연결망에서 소외될 수 있다(이지민, 김영근, 2021). 이는 자신감 저하, 사회적 위축, 수치심 등의 부정적인 정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경험을 한 아이는 성인이 되어서 사회적 고립에 더 취약해질 수 있을 것이다(노가빈 외, 2021).

다음으로,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 중 사회적 고립이 가장 높은 청년 집단을 예측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변수는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 믿었던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 원했던 때에 대학 입학 못했던 경험 순으로 나타났다. 즉, 성인기 이후에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이 있고, 믿었던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이 있으며, 원했던 때에 대학 입학 못했던 경험이 있는 청년은 사회적으로 고립될 위험이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성취와 생산에 대한 강요와 압박, 믿었던 사람의 배신, 진학 실패 등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촉발하는 것으로 나타난 기존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노가빈 외, 2021; 류주연 외, 2023; 박주홍 외, 2022).

성인이 된 이후에도 가까운 사람이 진로나 취업 문제로 압박을 가하면, 청년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자 하는 자율성을 침해받게 된다(Celik, 2024). 청년은 스스로 진로를 결정하고 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에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사회에서 요구하는 것과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을 조율하고 최적화된 방향으로 자신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이러한 과정을 스스로 충분히 경험하기도 전에 주변에서 특정 직업이나

학업을 강요하면, 청년이 스스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상실하게 되고 자신의 선택에 확신을 갖기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야기하며 삶의 의욕을 상실하게 하여 사회적 고립을 야기할 수 있을 것이다(Celik, 2024).

성인기 이후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과 더불어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나 배신을 당한 경험을 한 경우, 청년의 사회적 고립 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신뢰를 기반으로 한 관계에서의 배신은 결국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이 생기게 하여 대인관계 형성에 있어서 두려움과 불안을 낳고, 이는 점점 더 고립을 선택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다(박주홍 외, 2022). 성인기에 이러한 부정적인 경험들에 원했던 때에 대학 입학이 못했던 경험이 더해지면 청년의 사회적 고립 위험은 더욱 높아질 수 있다. 대학 입학 지연은 개인의 진로 계획이 예상했던 경로에서 벗어났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청년에게 하나의 실패 경험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또래 집단이 대학 진학이나 사회 진입과 같은 전형적인 생애 경로를 밟아가는 상황에서 대학 입학이 지연될 경우, 청년은 자신이 또래보다 뒤처졌다는 인식을 형성하기 쉽다. 이러한 또래와의 비교는 개인의 성취에 대한 부정적인 자기평가를 강화하여 스스로를 무능하거나 부족한 존재로 인식하게 만들 수 있다(Kang et al., 2025). 더 나아가 진로 경로의 불확실성이 지속될 경우 미래에 대한 불안이 증대되고, 주변 사람들과의 비교 과정에서 심리적 위축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김현숙, 2014). 이와 같은 경험은 사회적 관계에서의 자신감을 저하시켜 대인관계를 회피하거나 대인관계에 소극적이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변금순, 김정숙, 2024). 이러한 부정적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청년은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거나 두려워하게 되며 사회적으로 고립될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성인기 이전과 이후의 경험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때 사회적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은 성인기 이전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 성인기 이후 가까운 사람이 취업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 믿었던 사람이 사기를 치거나 배신했던 경험 순으로 나타났다. 인간의 자아정체감, 신뢰감, 사회적 기술은 주로 아동-청소년기에 형성된다(Erikson, 1968). 이 시기에 타인에게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당한 경험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 인식뿐만 아니라, 타인에 대한 불신, 사회적 불안, 회피적 대인관계 등이 형성되는 기반이 될 수 있다(Boulton, 2013). 이는 성인이 된 이후 대인관계나 사회생활에서 실패를 경험할 때 손상된 심리 상태에서 회복되는 것을 어렵게 하고, 과거의 부정적 경험을 떠올려 현재의 부정적 정서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 고립을 촉발하는 기저로 작동할 수 있다(Malamut & Salmivalli, 2025). 어린 시절 겪은 배척 경험으로 인해 심리적 외상(trauma)이 있는 상태에서 성인이 된 후 가까운 사람의 진로나 취업에 대한 강요 압박, 배신을 경험하게 되면, 타인에 대한 분노, 불신, 두려움이 심화되어 더 이상 사회생활에 대한 희망이나 기대를 갖지 못하게 되고 사회적 관계를 회피하고 고립될 수 있을 것이다(Thompson et al., 2022).

본 연구의 결과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이 특정 시기의 단일 경험에 의해 발생하기보다는 아동-청소년기와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이 누적되고 상호작용하면서 형성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은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에 대한 취약성을 높이며, 이후 발생하는 사회적 관계의 실패나 스트레스 상황에서 회복력을 약화시키는 기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특정 사건이나 시점에 대한 단편적 대응이 아니라, 생애과정 전반에서 누적되는 취약성을 고려한 예방적이고 통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아동-청소년기에 형성되는 사회적 관계 경험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나타났듯이 학교나 동네에서 괴롭힘이나 따돌림을 경험한 아동은 타인에 대한 신뢰가 약화되고 사회적 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형성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경험은 단순히 학령기 시기의 일시적 문제가 아니라 이후 대인관계 형성과 사회참여에 장기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학교폭력 사건 발생 이후의 사후적 대응뿐

아니라, 또래관계 갈등이나 따돌림과 같은 초기 위험 신호를 조기에 발견하고 개입하는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예방 및 개입 체계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와 가해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예방 및 개입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는 누구나 될 수 있지만, 연구와 통계에 따르면 사회성이 부족하거나 내성적인 학생, 외모·행동이 또래와 다른 학생, 신체적·정신적 어려움이 있는 학생, 가정 내 돌봄 부족이나 빈곤 등의 환경에 놓인 학생이 상대적으로 더 자주 피해자가 되는 경향이 있다(Stein et al., 2022; Twyman et al., 2018). 따라서 교사는 이러한 학생들의 친구관계와 학교생활을 지속적으로 살피고 상담과 지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가해자는 공감 능력이 부족하고 감정 조절이 미숙하여 공격성을 보일 가능성이 높으며, 폭력 행동이 제지되지 않을 경우 이를 정당화하거나 반복할 수 있다(김동민 외, 2014; Bjereld et al., 2021; Zych et al., 2019). 이에 학교폭력 예방교육에서는 역할극, 피해자 관점 활동 등을 통해 공감 능력을 기르고, 감정 이해 및 조절 교육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학교 차원의 체계적인 대응도 중요하다. 익명 신고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사를 학교폭력 책임자로 지정하여 신고 접수부터 피해자 보호, 가해자 지도, 사후 관리까지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개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가까운 사람이 취업 문제로 압박하거나 진로를 강요했던 경험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 수준을 높이는 결과는 청년기 사회적 고립 예방 정책이 단순히 개인의 취업역량 강화에만 초점을 둘 것이 아니라, 가족 및 관계 환경까지 포함하여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현재 청년 정책은 주로 청년 개인 대상의 취업 지원, 진로 상담, 심리 지원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부모와 가족의 과도한 기대와 통제가 청년의 자율성과 정서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한 정책적 개입은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청년기 사회적 고립 예방을 위해서는 청년의 자율적 진로결정권을 보호하고 가족 관계 차원의 지원을 포함하는 정책 보완이 필요하다. 가령, 청년센터, 가족센터,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을 중심으로 부모 대상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자율성 존중 의사소통, 비교와 통제 중심 양육의 부정적 영향, 성인기 자녀와의 건강한 관계 형성 방법 등을 교육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 상담 과정에서 가족 갈등과 부모 압박 문제를 함께 다룰 수 있도록 가족상담 및 부모상담 연계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청년의 다양한 진로와 삶의 속도를 존중하는 사회문화 조성을 위한 인식개선 캠페인과 부모교육 콘텐츠 보급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성인기 이후 대인관계에서 발생하는 신뢰 손상 경험에 대한 예방 및 심리적 지원도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믿었던 사람에게 사기나 배신을 경험한 경우 청년의 사회적 고립 위험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경험은 타인에 대한 전반적인 불신을 형성하고 새로운 관계 형성을 회피하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따라서 청년을 대상으로 한 심리 상담 및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대인관계에서의 신뢰를 회복하고 건강한 관계 형성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 또한 청년이 타인을 지나치게 신뢰하거나 타인에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는 경우 사기나 착취에 노출될 위험이 높으므로, 청년이 자신과 타인을 구분하고 관계의 경계를 설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도울 필요가 있다. 가령, 경계선 세우기 실습을 통하여 자신의 책임과 상대의 책임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고, 'YES/NO' 말하기 연습을 통하여 'NO라고 말해도 관계는 끊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지시킬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청년이 대인관계에서 자신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생활형 법률교육이나 금융·사기 예방 교육을 제공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아동·청소년기의 부정적 경험과 성인기 이후의 부정적 경험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고위험군 청년에 대한 통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 결과는 아동·청소년기의 괴롭힘 경험과 성인기 이후의 진로 압박, 대인관계 배신 경험이 결합될 때 사회적 고립 위험이 더욱 높아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청년의 사회적 고립 문제가 특정 시기의 사건이 아니라 생애과정 전반에서 누적된 취약성의 결과로 나타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따라서 학교, 지역사회 복지기관, 정신건강 서비스 기관 등이 협력하여 아동·청소년기부터 성인기까지 이어지는 연속

적인 지원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학교 단계에서 발견된 정서적 취약성을 가진 학생에 대해 지역사회 상담기관이나 청년 지원기관과 연계하여 장기적인 상담 및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방식의 통합 지원 체계를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애과정 기반의 지원이 이루어진다면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고 사회적 관계 회복을 지원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의사결정나무분석을 통하여 성인기 전후 부정적 경험이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어떻게 예측하는지를 분석함으로써,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있어서 성인기 전후 부정적 경험의 중요도와 변수들 간 결합에 의한 상호작용 효과를 파악하고, 청년의 사회적 고립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였다. 하지만 본 연구는 서울시에 거주하는 청년만을 분석 대상으로 하였기 때문에, 본 연구의 결과를 서울시와 다른 특성을 가진 지역으로 일반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추후에는 전국 대상으로 청년 표본을 추출하여 사회적 고립을 분석함으로써 보다 일반화된 결과를 도출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활용한 의사결정나무분석은 직관적이고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지만, 작은 데이터 변동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서로 다른 데이터셋에서는 전혀 다른 분류 구조의 나무가 생성되는 경향이 있다. 이로 인해 측정 결과의 일관성이 저하되는 한계가 존재하며, 과적합의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향후 연구에서는 다수의 의사결정나무분석 결과를 결합하여 예측력을 강화하는 앙상블(ensemble) 기법인 랜덤 포레스트(Random Forest), 경사 부스팅(Gradient Boosting), 엑스지부스트(XGBoost) 등을 활용하여 청년의 사회적 고립 예측 요인을 분석해 볼 것을 제안한다. 랜덤 포레스트는 다수의 나무를 결합함으로써 개별 나무의 불안정성을 완화하고 예측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경사 부스팅이나 엑스지부스트와 같은 기법은 오차를 순차적으로 보정하는 방식으로 보다 정교한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앙상블 기법을 적용하여 변수 중요도의 일관성, 주요 예측 요인의 재현성, 위험집단 식별 결과의 안정성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구 결과의 강건성(robustness)을 보다 체계적으로 검증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청년의 성인기 이전 경험과 이후 경험을 현 시점에서 회고적으로 조사하여 분석하였다. 그러나 연구 주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른 변화를 포함하는 종단적 성격을 지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에서는 단일 시점에서 수집된 횡단자료를 활용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를 종단적 인과관계로 해석하는 데에는 일정한 제약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아동기부터 청년기까지 동일한 개인을 지속적으로 추적 조사하는 패널 데이터를 구축하여 시계열적 분석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청년기의 사회적 고립에 대한 보다 실증적이고 타당한 인과관계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승희는 벨기에 소재 루벵대학교(KU LEUVEN)에서 사회정책학 석사학위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사회복지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국민대학교에서 조교수로 재직 중이다. 주요 관심 분야는 청소년, 장애인, 정신건강, 다문화이며, 현재 청소년, 이주민, 장애인의 사회적응과 정신건강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E-mail: shyu398@kookmin.ac.kr)

참고문헌

- 관계부처 합동. (2023). 고립·은둔 청년 지원 방안. 제11차 청년정책조정위원회 안건 제2호(심의).
- 국무조정실. (2022). 2022년 청년 삶 실태조사.
- 김구. (2002). 지방공무원의 직무만족과 직무성과의 영향요인에 관한 의사결정나무분석. 한국정책학회보, 11(2), 27-50.
- 김기현, 이윤주, 유선희. (2017).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II.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동민, 이미경, 심용출, 이창호. (2014). 학교폭력 영향 요인 메타분석. 청소년상담연구, 22(2), 441-458.
- 김성아. (2022). 고립의 사회적 비용과 사회정책에의 함의. 사회복지포럼, 305, 74-86.
- 김세원. (2018). 청소년기 학교폭력 피해 및 가해 경험이 초기 성인기 발달 결과에 미치는 영향. 청소년문화포럼, (54), 39-66.
- 김연옥, 김혜미, 최해경, 한윤선. (2022). 가족복지론. 학지사.
- 김은정. (2014). 20대 청년층의 새로운 생애발달단계로서 성인모색기에 관한 탐색 연구. 담론 201, 17(3), 83-129.
- 김은정. (2015). 부모 자녀 관계를 통해서 본 20대 청년층의 성인기 이행 과정 연구. 가족과 문화, 27(1), 69-116.
- 김정인. (2023). 청년의 사회적 고립에 관한 연구: 사회적 자본, 경제적 안정성, 상대적 박탈감을 중심으로. 한국행정논집, 35(3), 315-337.
- 김재우. (2018). 전라북도 청년층의 삶의 만족도 결정요인: 가구소득 효과에 대한 동네환경, 사회관계, 사회활동의 조절 역할을 중심으로. 지역사회학, 19(3), 5-48.
- 김재희, 박은규. (2016). 청년의 성인초기 발달과업 성취유형이 사회적 고립감에 미치는 영향. 한국청소년연구, 27(3), 257-284.
- 김춘남, 박승민, 박승희, 김서인. (2018). 사회적 고립의 유형분석 및 지원방안. 경기: 경기복지재단.
- 김현숙. (2014). 대학생의 진로스트레스와 심리적 안녕감의 관계에서 불확실성에 대한 감내력 부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1(2), 449-467.
- 김형주, 연보라, 배정희. (2020). 청년 사회경제 실태 및 정책방안 연구 V.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 김혜원. (2022). 은둔형 외톨이 청년들의 특성 및 은둔 경험 분석. 청소년학연구, 29(10), 1-32.
- 김홍중. (2015). 서바이벌, 생존주의, 그리고 청년세대. 한국사회학, 49(1), 179-212.
- 노가빈, 이소민, 김제희. (2021). 청년 은둔형 외톨이의 경험과 발생원인에 대한 분석. 한국사회복지학, 73(2), 57-81.
- 류정희, 전진아, 이상정, 이주연, 정익중, 유민상. (2018). 생애주기별 학대 경험 연구-아동기 학대 폭력의 중복적 경험과 정책적 대응. 세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주연, 성기욱, 김수진. (2023). 청년은 어떻게 사회적으로 고립되는가? 사회과학연구, 34(3), 47-71.
- 박주홍, 손지현, 서두산. (2022). 부산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부산복지개발원 2022-09.
- 박진원, 한창근. (2024). 청년 니트의 유형별 취업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복지학, 76(2), 253-278.
- 변금선, 김정숙. (2024). 청년의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유형, 정신건강의 관계-서울 청년의 이주 경험 차이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51(3), 67-108.
- 손승영. (2009). 한국 가족의 청소년 자녀 사회화 연구. 한국청소년연구, 20(1), 57-84.
- 송태민, 송주영. (2013). 빅데이터분석방법론. 한나래.
- 서경현, 신현진, 양승애. (2013). 거부적 부모양육태도와 대인관계 스트레스 및 사회불안 간의 관계: 냉소적 적대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한국심리학회지 건강, 18(4), 837~851.
- 서울특별시. (2022). 서울시 고립·은둔 청년 실태조사 결과 보고서.
- 유민상, 신동훈. (2021). 청년의 사회적 고립 실태 및 지원 방안 연구.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 윤철경, 박선영, 임말희, 김재희, 문금화, 김연정. (2021).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 가족지원을 위한 입법과제. 국회입법조사처. 연구보고 21-R03.
- 이경미. (2020). 은둔형 외톨이 성인의 자아존중감과 불안에 대한 긍정심리미술치료 사례연구 [석사학위논문, 경기대학교 대체의학 대학원].

- 이경선. (2015). 후기청소년의 사회적 히키코모리와 2차 분리-개별화. *연세상담코칭연구*, 4, 105-127.
- 이상욱, 김재희, 박일연, 이선미. (2023). 제2차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광주광역시사회서비스원 정책연구보고서.
- 이수비, 전예빈. (2023). 청년의 고립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관한 연구-수도권과 비수도권 청년 비교. *Crisisonomy*, 19(6), 125-141.
- 이연실. (2012). 유아의 탄력성 척도개발 및 타당화 연구 [박사학위논문, 숙명여자대학교].
- 이지민, 김영근. (2021). 은둔형 외톨이 경험이 있는 청소년의 은둔 경험에 관한 현상학적 연구. *한국아동심리치료학회지*, 16(2), 61-91.
- 이지연, 이영주. (2021). 의사결정나무분석에 의한 공과대학 졸업생의 첫 일자리 만족도 결정요인 탐색. *한국공학교육학회*, 24(1), 15-23.
- 이향남. (2008).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을 위한 생태체계적 통합 지원 모형 개발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대전대학교 대학원].
- 임선영, 김태현. (2005). 청년 실업자의 개인적 특성과 가족지지가 우울에 미치는 영향. *한국가족관계학회지*, 10(1), 51-73.
- 임형문, 김석웅, 박순영, 이세라, 최상희, 김영지, 이찬미, 장경철, 장혜진, 박유경, 이수아 (2020). 광주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 연구. 광주: 플인사이트
- 정근하, 노영희. (2022). 한국사회의 은둔형 외톨이 출현 배경 연구. *한국비교정부학보*, 26(1), 229-250.
- 정수남 외. (2012). '청춘밖의 청춘, 그들의 성인기 이행과 자아정체성: 빈곤 청년을 대상으로. *문화와 사회*, 12, 35-103.
- 정연순. (2014). 초점집단면담을 통해 본 청년 니트 유형과 특성. *한국고용정보원 격월간 고용이슈 3월호*, 7(2), 6-32.
- 최정윤. (2016). 초등학교에서의 전학경험이 정서문제와 학교적응에 미치는 효과 [석사학위논문, 한남대학교 대학원].
- 홍진이, 한기백. (2015). 청소년이 지각한 부모애착이 대인관계문제에 미치는 영향: 내면화된 수치심과 거절민감성의 매개효과. *청소년학연구*, 22(5), 367-389.
- 황수진, 홍진표, 안지현, 김명현, 정서현, 장혜인. (2021). 외로움과 사회적 고립 척도의 개발 및 타당화 연구. *Journal of Korean Neuropsychiatric Association*, 60(4), 291-297.
- Anda, R. F., Croft, J. B., Felitti, V. J., Nordenberg, D., Giles, W. H., Williamson, D. F., & Giovino, G. A. (1999).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smoking during adolescence and adulthood. *JAMA*, 282(17), 1652-1658.
- Anda, R. F., Dong, M., Brown, D. W., Felitti, V. J., Giles, W. H., Perry, G. S., Valerie, E. J., & Dube, S. R. (2009). The relationship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to a history of premature death of family members. *BMC Public Health*, 16(9), 106.
- Barnes, J., & Theule, J. (2019). Maternal depression and infant attachment security: A meta-analysis. *Infant Mental Health Journal*, 40(6), 817-834.
- Bjerdeld, Y., Daneback, K., & Mishna, F. (2021). Adults' responses to bullying: the victimized youth's perspectives. *Research Papers in Education*, 36(3), 257-274.
- Boulton, M. J. (2013). Associations between adults' recalled childhood bullying victimization, current social anxiety, coping, and self-blame: Evidence for moderation and indirect effects. *Anxiety, Stress & Coping*, 26(3), 270-292.
- Breaux, R. P., Harvey, E. A., & Lugo-Candelas, C. I. (2016). The Role of Parent Psychopathology in Emotion Socialization. *Journal of Abnormal Child Psychology*, 44(4), 731-743.
- Carlisle, N. & Rofes, E. (2007). School bullying: Do adult survivors perceive long-term effects? *Traumatology*, 13(1), 16-26.
- Çelik, O. (2024). The Mediating Role of Career Stress and Career Awareness in the Relationship Between Mother Helicopter Parenting, Autonomy Supportive Behaviors, and Career Instability. *Erzincan Üniversitesi Eğitim Fakültesi Dergisi*, 26(4), 607-619.
- Chang, E. C., Muyan, M., & Hirsch, J. K. (2015). Loneliness, positive life events, and psychological maladjustment, when good things happen, even lonely people feel better. *Personality and Individual Differences*, 86, 150-155.

- Clarke, D., & McDougall, L. (2014). *Social Isolation in Bristol: Risks, Interventions and Recommendations Report*. Bristol: Bristol City Council.
- Cronholm P. F., Forke, C. M., Wade, R., Bair-Merritt, M. H., Davis, M., Harkins-Schwarz, M., Pachter, L. M., Fein, J. A. (2015).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Expanding the concept of adversit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49(3), 354-361.
- Crouch, E., Probst, J. C., Radcliff, E., Bennett, K. J., & McKinney, S. H. (2019). Prevalence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among US children. *Child Abuse & Neglect*, 92, 209-218.
- Dong, M., Anda, R. F., Felitti, V. J., Dube, S. R., Williamson, D. F., Thompson, T. J., Loo, C. M., & Giles, W. H. (2004). The interrelatedness of multiple forms of childhood abuse, neglect, and household dysfunction. *Child Abuse Neglect*, 28(7), 771-784.
- Duncan, D., & Bell, R. (2015). *Local action on health inequalities: Reducing social isolation across the lifecourse*. London: Public Health England.
- Erikson, E. H. (1968). *Identity, Youth, and Crisis*. W. W. Norton & Company.
- Felitti, V. J., Anda, R. F., Nordenberg, D., Williamson, D. F., Spitz, A. M., Edwards, V., & Marks, J. S. (1998). Relationship of childhood abuse and household dysfunction to many of the leading causes of death in adults: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 Study. *American Journal of Preventive Medicine*, 14(4), 245-258.
- Finkelhor D, Shattuck A, Turner H, Hamby S. (2013). Improving the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study scale. *JAMA Pediatrics*, 167(1), 70-75.
- Fuller-Thomson, E., Baird, S. L., Dhrodia, R., & Brennenstuhl, S. (2016). The association betwee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and suicide attempts in a population-based study: Adverse childhood experience and suicide attempts. *Child: CareHealth and Development*, 42(5), 725-734.
- Hazler, R. J., & Denham, S. A. (2002). Social isolation of youth at risk: Conceptualizations and practical implications. *Journal of Counseling & Development*, 80(4), 403-409.
- Hughes, K., Lowey, H., Quigg, Z., & Bellis, M. A. (2016). Relationships between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nd adult mental well-being: results from an English national household survey. *BMC Public Health*, 16, 222.
- Kang, S., Gu, Q., Qin, W., Liu, S., Xue, Y., Zheng, Q., Gu, C., & Cao, Y. (2025). Do college freshmen who engage more in online social comparison tend to be more confused about themselves? *The roles of rumination and self-compassion*. *Behavioral Sciences*, 15(7), 849.
- Leza, L., Siria, S., López-Goni, J. J., & Fernández-Montalvo, J. (2021).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ACEs) and substance use disorder (SUD): A scoping review. *Drug and Alcohol Dependence*, 221, 108563.
- Malamut, S. T., & Salmivalli, C. (2025). Young Adults' Social Relationships Affect Their Likelihood of Ruminating About Past School-Age Victimization. *Aggressive Behavior*, 51(5), e70050.
- Merrick, M. T., Ports, K. A., Ford, D. C., Afifi, T. O., Gershoff, E. T., & Grogan-Kaylor, A. (2017). Unpacking the impact of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on adult mental health. *Child Abuse & Neglect*, 69, 10-19.
- Poole, J. C., Dobson, K. S., & Pusch, D. (2018). Do adverse childhood experiences predict adult interpersonal difficulties? The role of emotion dysregulation. *Child Abuse & Neglect*, 80, 123-133.
- Rigby, K. (2003). *Consequences of bullying in schools*. The Canadian Journal of Psychiatry
- Sheikh, M. A. (2018). Childhood physical maltreatment, perceived social isolation, and internalizing symptoms: A longitudinal, three-wave, population-based study. *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27(4), 481-491.
- Shmueli, G., Patel, N. R., & Bruce, P. C. (2011). *Data mining for business intelligence: Concepts, techniques, and applications in Microsoft Office Excel with XLMiner*. John Wiley and Sons.

- Stein, J. A., Van Dijk, M., Stoof, H., Arts, S., Jansen, M. W. J., & Vreugdenhil, A. C. E. (2022). Household dysfunction is associated with bullying behavior in 10-year-old children. *Child Psychiatry & Human Development*, 54, 81-90.
- Thompson, K. N., Odgers, C. L., Bryan, B. T., Danese, A., Milne, B. J., Strange, L., Matthews, T., & Arseneault, L. (2022). Trajectories of childhood social isolation in a nationally representative cohort: Associations with antecedents and early adulthood outcomes. *JCPP Advances*, 2(2), e12073.
- Twyman, K. A., Maximo, J. O., Lechner, W. V., & Barlage, S. (2018). Rates of peer victimization in young adolescents with ADHD and associations with internalizing symptoms and self-esteem. *Journal of Attention Disorders*, 22(1), 25-35.
- Vernberg, E. M., Greenhoot, A. F., & Biggs, B. K. (2006). Intercommunity relocation and adolescent friendships: who struggles and why?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74(3), 511-523.
- Wenger, G. C., Davies, R., Shahtahmasebi, S., & Scott, A. (1996). Social isolation and loneliness in old age: Review and model refinement. *Ageing and Society*, 6, 333-358.
- Zavaleta, D., Samuel, K., & Mills, C. T. (2017). Measures of social isolation. *Social Indicators Research*, 131(1), 367-391.
- Zimmer-Gembeck, M., Rudolph, J., Kerin, J., & Bohadana-Brown, G.. (2021) Parent emotional regulation: A meta-analytic review of its association with parenting and child adjustment. *International Journal of Behavioral Development*, 46(1), 63-82.
- Zych, I., Tfofi, M. M., & Farrington, D. P. (2019). Empathy and callous-unemotional traits in different bullying roles: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Trauma, Violence, & Abuse*, 20(1), 3-21.

A Study on the Effects of Adverse Experiences Before and After Adulthood on Social Isolation among Young Adults: Application of Decision Tree Analysis

Yu, Seunghee¹

¹ Kookmin University

| Abstract |

This study aimed to analyze how adverse experiences before and after adulthood predict social isolation among young adults using decision tree analysis. The data used for the analysis are from the 2022 Seoul Survey on Socially Isolated and Reclusive Youth, conducted by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 and comprising 5,513 young people aged 19 to 39 residing in Seoul. The CHAID algorithm, a decision tree analysis method, was employed. To evaluate the validity and stability of the decision tree model, splitting criteria, overfitting control strategies, and cross-validation analyses were applied. The results showed that when experiences before and after adulthood interact, the key factors influencing social isolation are: (1) experiences of being bullied or ostracized at school or in the neighborhood before adulthood, (2) experiences of being pressured about employment or having a career path forced by close individuals after adulthood, and (3) experiences of being deceived or betrayed by someone they truste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proposes policy measures to address young adults' social isolation, including strengthening school violence prevention and intervention systems, protecting youths' autonomy in career decision-making and providing family-level support, offering preventive and psychological support for experiences of interpersonal trust violation in adulthood, and establishing an integrated life-course-based support system.

Keywords: Young Adults, Social Isolation, Adverse Experiences, Decision Tree Analysis